

2020

ISSUE BRIEFING

연구진

이동기_사회문화연구부 선임연구위원

이은정_사회문화연구부 전문연구위원

FAO 세계농업대학 설립하여 전북에 유치하자

CONTENTS

I. 왜 FAO 세계농업대학이 필요한가?	2
II. 대한민국에 FAO 세계농업대학 설립이 필요하다	7
III. 부산 FAO 세계수산대학 유치 및 UN 산하 교육기관 사례	10
IV. 전북은 세계농업대학 설립의 최적지이다	11
V. FAO 세계농업대학 유치 추진방향	13

I. 왜 FAO 세계농업대학이 필요한가?

◎ FAO는 식량 안보의 핵심 자원인 농업 혁신을 위해 교육 중요성 강조

- 유엔식량농업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FAO)는 농림, 식품, 수산, 산림 분야 등에서 국제적으로 가장 권위있는 기구로, 식량 안보(Food Security) 및 지속가능한 농업 촉진(Sustainable Agriculture Promotion) 등을 중요 아젠다로 설정

* FAO는 기아, 식량 불안 및 영양불량 퇴치, 빈곤 경감, 자연자원(토지, 물, 공기, 기후, 유전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및 이용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기구임

- 농업은 식량 안보의 핵심이자, 전세계 인류의 핵심 생명자원이지만, 병충해와 지구온난화 등의 기상이변은 농업에 각종 위협과 영향을 미치고 있음. 특히 농업 의존도가 높은 개발도상국의 경우 농업은 해당 국가의 생존 및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가 됨

- 미국은 세계의 빈곤과 기아 감소 등을 위한 식량 안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FTF(Feed the Future)¹⁾를 설립하여 농업의 포괄적 성장 가속화를 추진함

*2050년까지 세계 인구에게 충분한 식량 공급을 위해서는 농업생산의 70%가 필요하다고 전망²⁾

- 기후변화, 병충해, 코로나-19와 같은 바이러스 확산 등의 다양한 자연적, 인위적 재해 발생으로 인해 농업생산 및 유통 등의 활동 등이 위축되고, 식량 안보의 위기사항과 문제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를 대응하기 위한 FAO의 역할이 중요

- 기후변화(climate change)는 식량 안보, 빈곤퇴치, 지속가능한 개발 등을 위협하고 있고³⁾ 강우패턴변화, 가뭄, 홍수, 해충 및 질병 등으로 농업생산성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치며 CO₂로 인해 사람들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체계적 대응이 필요

* FAO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기후변화 정책분석, 농업유산, 농업생태시스템의 소규모 관개 적응 등을 수행

- FAO에 의하면 최근 COVID-19로 인해 개발도상국가(콩고, 중앙아프리카, 남수단, 아이티, 시리아, 미얀마 등)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심각한 식량 위기 및 기아 등에 직면하였으며, 이들 국가들은 COVID-19가 발생하기 전에도 1억1천1백만 명 정도가 심각한 기아 상황에 있었음⁴⁾

- WFP(World Food Programme, 유엔세계식량계획)는 코로나-19로 인해 식량 위기 인구가 2019년 1억3,500만명에서 2020년 말에 2억 6,500만 명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 2019년 식량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인구의 유형은 분쟁(7,700만명), 기후변화(3,400만명), 경제난(2,400만명)이며,

1) FTF는 2009년 오바마 대통령 시기에 미래 식량 안보 대응을 위해 FTF 이니셔티브 제시

2) U.S. Government. (2011). FEED THE FUTURE: Global Food Security Research Strategy. p.9

3) U.S. Government. (2011). FEED THE FUTURE: Global Food Security Research Strategy. p.35

4) <http://www.fao.org/news/story/en/item/1269721/icode/>

FAO 세계농업대학 설립하여 전복에 유치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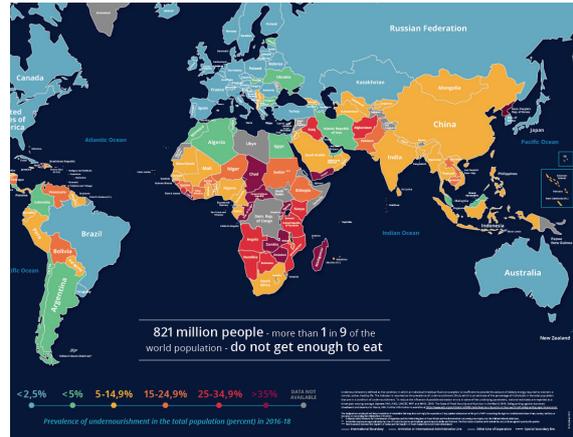
최악의 식량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국가는 예멘, 콩고민주공화국, 아프가니스탄, 베네수엘라, 에티오피아, 남수단 등 10개 국가 등임⁵⁾

〈FAO 기후변화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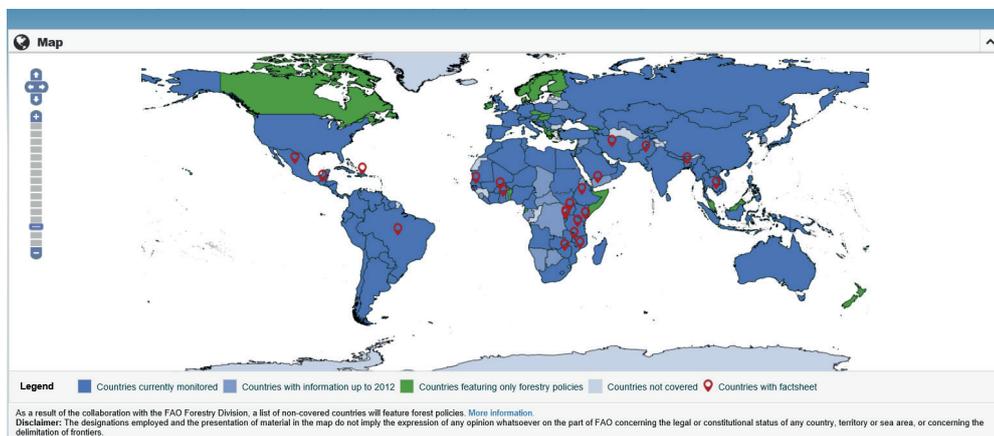
<http://www.fao.org/climate-change/our-work/what-we-do/climate-change-strategy/en/>

〈Hunger 2019 map〉



https://docs.wfp.org/api/documents/WFP-0000108355/download/?_ga=2.6722674.1550719629.1588059347-1497957581.1588059347

- FSIN(Food Security Information Network)도 마찬가지로 COVID-19와 같은 전염병(pandemic)은 취약한 계층이 많은 국가의 국민들의 생계와 식량 안보를 파괴할 수 있다고 함⁶⁾
- FAO는 COVID-19 등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세계 각국의 식량 안보 정책 결정의 사례 및 정책 등을 공유하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FAPDA 플랫폼을 구축 운영
- * FAPDA(Food and Agriculture Policy Decision Analysis)를 개발하여 전 세계 100개국에 대한 1만개 이상의 국가 정책 내용 등을 수록·정책 DB화하여 정보를 제공



<http://www.fao.org/in-action/fapda/tool/index.html#main.html>

5) <https://ko.wfp.org/news/covid-19-will-double-number-people-facing-food-crises-unless-swift-action-taken> 재인용

6) FSIN. (2020). 2020 Global Report on Food Crises-Joint Analysis For Better Decisions, p.3

- FAO는 식량 안보, 지속가능한 개발 및 농업 개발 촉진을 위해 농업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농업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농촌서비스 강화, 식량 및 농업분야의 청년 기업가 정신을 강화하기 위한 농업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 필요성 강조⁷⁾

* FAO는 "디지털 혁신은 아이디어를 가치 있는 산물로 전환하는 중요 도구"로 개발도상국의 청년들에게 일자리 제공 및 기술, 정보의 접근성을 높여 농업 및 식량 등의 안보를 위협하는 문제(예컨대, 빈곤, 기아, 기후변화, 질병 및 해충, 디지털 문맹, 생활방식 등)의 해결 방법을 제안할 수 있어 지속가능한 농업혁신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 이를 실행할 수 있는 교육훈련 프로그램 적용 및 우수한 농업인재 양성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음⁸⁾

- 미국의 FTF도 식량 안보의 대응을 위해 지속적인 농업혁신이 필요⁹⁾하고, 농업을 둘러싼 환경 조건, 농업기업, 변화하고 있는 식사습관 등의 다양한 정보를 분석하여 이를 반영할 수 있는 농업의 과학 및 기술 혁신(scientific and technological innovations)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개발도상국가 등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¹⁰⁾

<FAO's role in agricultural innovation>

FAO believes that innovation, in general and particularly in agriculture, is the central driving force for achieving a world free from hunger and malnutrition. Innovation is usually perceived as related to technology. In fact, innovation is broader than that. Agricultural innovation is the process whereby individuals or organizations bring new or existing products, processes or ways of organization into use for the first time in a specific context, to increase effectiveness, competitiveness and resilience with the goal of solving a problem. FAO plays a key role in promoting the importance of innovation in agriculture to increase food security, sustainable development and promote rural development.

data: <http://www.fao.org/innovation/en>

- 따라서, 식량 안보의 위기 극복 및 개발도상국의 농업 기반 구축을 위한 지속가능한 농업 육성이 요구되며, 농업 자원 관리 및 농업기술, 농업 기계 운용 등 체계적인 인재육성을 위한 세계농업대학 설립이 절실한 상황임

- FAO는 개발도상국의 농업자원 개발 및 관리 등을 수행할 역량 있는 농업인재육성을 위해 교육훈련 필요성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FSIN의 경우도 개발도상국의 빈곤 및 기아 등 식량 위기에 벗어나기 위해서 교육 중요성 강조¹¹⁾

- 미국 FTF는 농업 생산성 혁신을 위해 신(新) 농업 기술 연구와 더불어 교육훈련 등을 통해 식량 안보에 대응해야 하고 특히 개발도상국의 식량생산 및 수익 증대 등을 위해서라도 더욱 교육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¹²⁾

◎ 세계농업대학 설립은 FAO의 개발도상국 성장을 위한 지속가능한 목표(SDGs) 실현

- FAO가 발표한 '2019 세계 식량 안보 및 영양 보고서'(The State of Food Security and Nutrition in the World, 2019)에 의하면, 세계 영양부족 인구 수는 2018년 기준 8억 2,000만

7) <http://www.fao.org/innovation/en>

8) FAO. FAO : Digital Innovation(<http://www.fao.org/innovation/en>)

9) U.S. Government. (2011). FEED THE FUTURE: Global Food Security Research Strategy. p.10

10) U.S. Government. (2011). FEED THE FUTURE: Global Food Security Research Strategy. p.9

11) FSIN. (2020). 2020 Global Report on Food Crises-Joint Analysis For Better Decisions. p.10

12) U.S. Government. (2011). FEED THE FUTURE: Global Food Security Research Strategy. p.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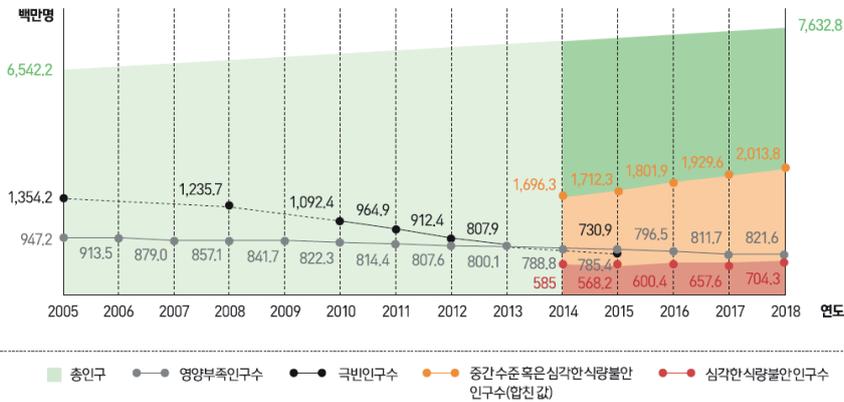
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 중간 수준 및 심각한 식량 불안 인구의 수는 세계 인구의 26.4%인 20억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며¹³⁾, 이 중 아프리카의 경우 중간 수준 및 심각한 식량 불안 인구의 수는 52.5%에 이르고 있음¹⁴⁾

- FAO는 식량불안으로 외부식량지원이 필요한 국가로 아프리카 34개국, 아시아 8개국, 중남미-카리브 2개국 등 44개 국가를 지정¹⁵⁾

- 영양 부족 인구비율의 경우 2018년 기준 아프리카 19.9%, 아시아 11.3%, 중남미-카리브 6.5%, 오세아니아 6.2%이고, 세계 평균은 10.8%로 나타남¹⁶⁾

10년 간의 극심한 빈곤 영양부족 인구수 감소세 이후, 최근 몇 년간 영양부족 식량불안 인구수는 증가세를 보임



자료: FAO KOREA. (2020.4). 세계 식품과 농수산. 재인용

- 저소득 식량부족국가 및 개발도상국가 등의 식량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농업 경쟁력 향상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한 교육시스템 구축이 요구되는 상황임. 농업 교육훈련은 농민들의 역량을 개발하고 인적자본을 창출함으로써 농업생산성을 상승시키기 때문임¹⁷⁾

- FAO는 교육과 훈련은 사람에 대한 투자이고 농민들에게 혁신을 위한 기술과 능력을 개발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으로서 이를 위해 농업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더 높은 수준의 교육이 필요하며, 학계는 농민들이 직면한 아젠다를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¹⁸⁾

- FAO는 농촌지역의 교육훈련은 노동을 비롯한 투입재의 생산성 증대,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기술에 관한 정보 확보와 소요 비용의 감소, 기업을 정신, 변화하는 시장 여건과 기술발전에 대한 대응 등을 통해 농업생산성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¹⁹⁾

13) FAO KOREA. (2020.4). 세계 식품과 농수산.

14) FAO KOREA. (2019). 2019 세계 식량 안보 및 영양 현황. p.14

15) FAO KOREA. (2020.4). 세계 식품과 농수산. p.28-32.

16) FAO KOREA. (2019). 2019 세계 식량 안보 및 영양 현황. p.9

17) FAO 한국협회. (2014). 세계식량농업보고서-가족농혁신. p.110

18) FAO. (2014). The State of Food and Agriculture-Innovation in family farming. p.75

19) FAO 한국협회. 2014 세계식량농업보고서-가족농혁신. p.109 재인용

<Developing Individual Capacities>

Education and training represent an investment in people and are probably the most important way to develop people's skills and competencies for innovation, whether they are farmers, service providers, researchers or policy-makers. Farmers need to attain more advanced levels of education to make use of new ICT-based information sources and technical advice and to respond to new market opportunities and environmental change. Extension staff need both an up-to-date understanding of the topics on which they provide advice and the ability to communicate and interact with other actors. Academics need to be up to date with cutting-edge science and able to address the challenges faced by family farmers when these are relevant to their research agendas.

data: FAO. (2014). The State of Food and Agriculture-Innovation in family farming. p.75

- UN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달성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또한 제로 형거, 식량 안보 및 영양 개선을 달성하고자 SDG2를 설정하여 지속가능한 농업 촉진을 추진하고 있음



- 2030년 86억 인구가 식량을 섭취하기 위해 SDG2를 달성하기 위한 농업시스템의 방향 설정이 필요하며²⁰⁾, 이를 위해 UN을 비롯한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개발도상국의 식량 안보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²¹⁾에 대해 필요성 공감. FAO는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교육 여건을 개선하는 것은 미래의 생산성, 고용 가능성, 소득, 후생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때문²²⁾

- 세계농업대학의 설립은 개발도상국가의 기아, 빈곤, 영양 부족 등을 해결하고 기후 변화, 병충해, 코로나19 등과 같은 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식량 안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음.
- 또한 농업 분야의 교육훈련을 통해 개발도상국가의 농업역량 강화와 농업과학 및 농업기술의 발전 그리고 SDGs 실현에 기여함으로써 UN의 정책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될 것임

20) FAO KOREA. (2020.4). 세계 식품과 농수산. p.21

21) U.S. Government. (2011). FEED THE FUTURE: Global Food Security Research Strategy. p.35

22) FAO 한국협회. (2015). 2015 세계식량농업보고서-사회보호와 농업: 농촌빈곤의 악순환 타파

- 지속가능한 농업을 통한 안정적인 식량자원을 보급하고 지속적인 농업 혁신을 위해서는, 세계에서 운영 중인 단기 지원 교육프로그램들과 연계하고 개발도상국가의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교육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세계농업대학 설립이 필요함
- FAO의 헌장 제1조 2(b)항에서 개발도상국가의 농업, 식량, 영양 등의 향상 및 농업 역량 등을 위해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어 세계농업대학 설립의 명분이 충분함

▶ Paragraph 2(b) of Article 1 of the FAO Constitution

The Organization shall promote and, where appropriate, shall recommend national and international action with respect to the improvement of education and administration relating to nutrition, food and agriculture, and the spread of public knowledge of nutritional and agricultural science and practice.

자료: 해양수산부.(2015). FAO 세계수산대학 설립 제안서. 재인용

II. 대한민국에 FAO 세계농업대학 설립이 필요하다

◎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가교 역할

- 대한민국은 외국으로부터 원조를 통해 빈곤 및 기아, 경제위기 등을 극복한 개발도상국의 경험과 선진국에 이르는 경험과 자산 등을 보유하고 있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다양한 상황에 대응하여 핵심적인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상을 보유
 - 대한민국은 선진국 등 외국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개발도상국의 경험과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하여 선진국 반열에 오르고, 개발도상국에 원조를 해주는 개발원조위원회(DAC)에 2009년 회원국으로 가입하였으며, 2019년에 WTO의 개발도상국 지위에서 벗어남
 - 2004년부터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nowledge Sharing Program, KSP)을 시작하여 한국의 발전 경험과 성장 지식을 활용하여 협력국의 수요와 여건을 고려한 정책자문을 76개 협력국 9개 국제기구와 협력네트워크를 통해 421건의 사업을 수행²³⁾
- 대한민국은 유엔 전자정부 평가 및 정상회의 개최, 코로나-19 대응 등 글로벌 이슈에 선제적 대응을 통해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의 협력적 동반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최적의 국가 위상 확보
 - 유엔 전자정부평가²⁴⁾에서 2018년에 온라인 참여부문 공동 1위, 전자정부 발전부문 종합 3위를 차지하는 등 선진국 수준의 거버넌스 및 네트워크 역량이 구축되어 있음²⁵⁾

23) <http://www.ksp.go.kr/pageView/ksp-statistics>(검색일, 2020.5.4)

24) UN 경제사회처(UNDESA)는 2년마다 193개 회원국의 전자정부 수준을 온라인 참여지수와 전자정부 발전지수로 평가(행안부, 2018.7.23. 보도자료) - 온라인 참여지수 : 온라인 정보제공, 정책참여, 정책결정 3가지 분야 평가; 전자정부 발전지수 : 온라인서비스, 통신인프라, 인적 자원 3가지 분야 평가

25) 대한민국은 유엔 전자정부평가에서 2010,2012,2014년에 온라인 참여지수와 전자정부 발전지수 등에서 연속 1위를 차지

- 2010년 제5회 G20 정상회의, 2012년 핵안보정상회의, 2019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2020년 P4G²⁶⁾ 정상회의, 2025년 APEC 정상회의 등을 개최 또는 개최 예정하고 있어, 식량 및 농업, 에너지, 기후변화, 인적교류 및 교육훈련 등 글로벌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
- 코로나-19로 인해 K-방역모델이 전 세계적인 표준 및 최고의 기준인 Gold Standard로 평가받고²⁷⁾, 방역 대응의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의 가교 역할을 수행

◎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서 개발도상국가의 SDGs 지원을 위한 국제개발협력 역량 집중

- 대한민국은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된 모범국으로서, OECD 가입 후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공적개발원조) 사업 예산 및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2018년 기준 29개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 중 15위에 해당하는 23.5억 불 지원('09년 8.2억 불→'18년 23.5억 불)²⁸⁾

* 국내 '20년 ODA 확정액 규모는 약 3조 4,270억 원으로 총 41개 기관 1,551개 사업 추진, 양자협력 vs 다자협력간 비율이 약 81:19, 유상협력 vs 무상협력간 비율이 43:57 수준이며, 아시아(39.4%)와 아프리카(17.9%) 중심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²⁹⁾

* '20년 ODA 지원 분야는 교통(13.6%), 교육(10.4%), 보건(10.0%) 순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지원형태의 경우 프로젝트(64.2%), 봉사단 파견(5.7%), 연수사업(5.5%) 순으로 이루어지고 있음³⁰⁾

- 대외 개발협력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국제적인 선도 노력을 강화하여 국제적 위상을 확보하고, 글로벌 핵심 아젠다인 개발도상국 SDGs 지원에 역량 집중

- 2010년 G20 서울 정상회의에서 국가간 개발격차 감소 및 저소득국 성장 등을 강조한 '서울 개발 컨센서스'를 주도하였고, 2011년에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HLF-4) 개최국으로 원조에서 개발로 패러다임의 전환 등을 담은 '부산선언' 채택³¹⁾

- 개발도상국의 SDGs 이행 및 자립기반 마련 지원을 위해, SDGs 17개 분야 중 비교우위가 있는 교육(16.1%), 산업(14.0%), 보건(10.7%), 기아 종식(10.2%) 등을 중심으로 역량 집중³²⁾

◎ 농업의 지속적인 국제개발 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우수한 교육훈련 경험과 인프라 구축

- 농촌개발 및 고등교육 지원 등 신남방 국가의 지속 가능한 성장지원을 위한 국제개발협력 추진

* 아세안 국가, 인도 및 몽골, 중앙아시아 지역 등을 대상으로 신남방 국제개발협력 5대 중점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0년 신남방 국가의 국제개발협력 규모가 총 7,701억 원('19년 6,145억 원 대비 25% 증가)³³⁾

26)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Global Goals 2030)

27)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2020.5.1.). 한국의 코로나 19 방역 100일

28) 관계부처 합동. (2020). '20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p.4

29) 관계부처 합동. (2020). '20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p.25~26

30) 관계부처 합동. (2020). '20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p.27

31) 관계부처 합동. (2020). '20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p.4 재인용

32) 관계부처 합동. (2020). '20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p.10 재인용

33) 관계부처 합동. (2020). '20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p.11~12

FAO 세계농업대학 설립하여 전복에 유치하자

- 농업 분야의 국제개발협력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농업 및 농촌개발 지원을 통한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에 기여
 - '20년 농업분야의 국제개발협력 규모는 총 1,121.9억 원(농림축산식품부 889.5억, 농촌진흥청 232.4억)임
 - * 지원유형은 농림축산식품부의 경우 프로젝트(79.3%), 농촌진흥청의 경우 개발컨설팅(97.1%)에 집중
 - '14년~'20년 동안 전 세계 농업 분야 국제개발협력의 사업 지원 실적은 총 413건이며, 사업규모의 경우 4,693억 원을 지원하여 개발도상국가의 농업 성장에 기여하고 있음

5대 중점 프로그램	SDGs
포용적 개발을 위한 디지털 파트너십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고등교육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농촌개발 및 지뢰제거 (한-메콩 미래 평화공동체 사업)	
자연과 사람이 함께하는 스마트 도시 개발	
균형성장을 견인하는 포용적 교통	

〈신남방 ODA 5대중점 프로그램〉

관계부처 합동. (2020). '20년 국제개발협력 종합 시행계획. p.12

〈'20년 농업 분야 ODA 지원 규모 및 사업유형〉

(단위 : 억원, %)

구분	계	프로젝트	프로그램	개발 컨설팅	기술협력				민관 협력	행정 비용	순수 다자
					연수 사업	장학 지원	봉사단 파견	기타 기술협력			
농림축산 식품부	889.5	705.3	-	11.5	4.9	-	-	3.5	-	-	164.4
	100	79.3	-	1.3	0.5	-	-	0.4	-	-	18.5
농촌 진흥청	232.4	-	0.7	225.7	2.4	-	-	-	-	-	3.6
	100	-	0.3	97.2	1.0	-	-	-	-	-	1.5

자료: 관계부처 합동. (2020). '20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참고하여 재편집

〈'14년~'20년 농업 분야 ODA 지원 사업 규모 및 사업 수 실적 현황〉

(단위 : 억원, 건)

구분	총계		2020		2019		2018		2017		2016		2015		2014	
	사업 규모	사업 수	사업 규모	사업 수	사업 규모	사업 수	사업 규모	사업 수	사업 규모	사업 수	사업 규모	사업 수	사업 규모	사업 수	사업 규모	사업 수
농림축산 식품부	3,370.6	253	889.5	42	768.7	38	748.6	40	269.9	39	225.2	39	241.9	29	226.8	26
농촌 진흥청	1,322.4	160	232.4	29	211.1	28	210	31	188.1	30	168.1	30	156.7	6	156	6
계	4,693	413	1,121.9	71	979.8	66	958.6	71	458	69	393.3	69	398.6	35	382.8	32

자료: 관계부처 합동. 각 년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참고하여 재편집

- 한국의 농업은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농업기술력을 확보하여, 식량 생산 확대 및 채소 등의 생산량이 높은 상태이며, 우수한 농업 연구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음
 -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식량 생산 및 배추, 마늘, 고추 등의 세계적인 생산량 보유
 - * 한국의 경지면적은 164만ha로 전체 국토면적의 16.4% 차지(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9)³⁴⁾, 식량생산액은 2017년 10,174백만 달러, GDP 대비 농업부가가치 비중은 2.0%(FAO 한국협회, 2019)³⁵⁾

34) 김문희·김중현·박동규. (2019). 통계로 본 세계속의 한국농업. 한국농촌경제연구원.

35) FAO 한국협회. (2019). 2019 세계식량농업통계연감(한국어번역).

- * 한국의 배추생산량은 2017년 기준 239만톤으로 세계 4번째(3.9%), 고추생산량은 22만톤으로 세계 고추생산량(3,609만톤)의 0.6%로 세계 14위, 마늘은 29만톤으로 세계 4위(1.0%)의 생산량을 차지(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9)
- 우수한 교육훈련 및 연구 기관 등을 보유하고 있어 농업기술의 개발 및 경험 등이 풍부
- *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및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식품공무원교육원, 한국농수산대학, 국립종자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을 통해 민-관-학-연 등의 연계 네트워크 구축

III. 부산 FAO 세계수산대학 유치 및 UN 산하 교육기관 사례

◎ 부산 FAO 세계수산대학 유치 사례

- 부산은 FAO 산하 세계수산대학(World Fisheries University) 시범사업 약정을 체결(FAO, 해수부, 부산, 부경대)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결정
 - 2017년 9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자체적으로 세계수산대학 시범사업 과정을 운영하여, 2019년 2월에 24개국 석사 학위자 25명, 지도자 양성과정 참여자 19명 등 총 44명 졸업생 배출
- 부산 FAO 세계수산대학 설립을 2013년부터 추진하여, 2017년 7월에 최종 FAO 총회에서 승인을 거쳐 시범사업 약정 체결이 이루어짐³⁶⁾

- * 2013년 6월 로마 제38차 FAO 총회에서 최초 제안→2013년 11월 뉴욕 제68차 유엔총회 수산결의안 비공식회의에서 회원국 상호간 협력 촉진 문안 교환→2014년 1월 FAO본부에서 한국과 FAO간 수산양식 연구 및 역량 구축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2014년 3월 몽골 울란바토르 제32차 FAO 아시아-태평양 지역총회에서 교육훈련을 통한 개발도상국 수산분야 역량강화 촉진 제안
- * 2014년 6월 로마 제31차 FAO 수산위원회→2014년 11월 미국 뉴욕 제69차 UN 수산결의안 채택을 위한 비공식 회의→2014년 12월 세계수산대학 설립을 위한 한국과 FAO의 타당성 조사 실시→2015년 11월 FAO 재정위원회 및 제118차 프로그램 위원회 및 재정/프로그램 공동위원회→2015년 11월 제153차 이사회
- * 2016년 7월 제32차 FAO 수산위원회→2016년 10월 제103차 FAO헌장법률위원회 승인→2016년 12월 제154차 이사회 검토 및 확인→2017년 7월 제40차 FAO총회 의제 상정 및 승인→2017년 7월 세계수산대학 시범사업 운영 약정 체결→세계수산대학 자체시범사업('17.9~19.2)→공동시범사업('20.3~'21.8)

〈FAO 산하 세계수산대학 시범사업 약정체결 내용〉

구분	주요내용
시범사업 목적	·교육과 역량 구축 활동 실현을 위한 시범사업(석사과정, 단기 훈련과정, 수산분야 세미나) 공동 개발 및 이행 ·FAO 의사결정기구의 평가를 위한 시범사업 정보 제공
주체별 역할	·(FAO) 시범사업 관련 모든 통신문과 학생 선발 승인, 교육내용에 대한 기술 지원·자문 및 자료 제공 ·(해수부) 시범사업 이행 관련 시설·서비스·자원 제공, 입국·체류 편의 제공 등 ·(부경대) 시범사업 개발 및 제공, FAO 직원 근무시설과 학생 필요시설 제공, 학생 평가 및 최종시험 시행

36) 해양수산부. (2015). FAO 세계수산대학 설립 제안서를 참고하여 재작성

운영위원회	·(구성) FAO 사무국과 해수부 대표 ·(회기) MOU 발효 후 최소 6개월마다 ·(역할) 학사, 행정, 재정사항, 시범사업 제도·지침의 검토 및 승인
부칙	·(교육과정) 석사과정 30명, 3개 전공(양식기술, 자원관리, 사회과학), 12과목(필수4, 선택8), 3학기

자료: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2019.5.13.). 해수수-유엔식량농업기구, 세계수산대학 시범사업 약정 체결. 재인용

◎ UN 산하 교육기관 운영 사례³⁷⁾

- IMO 세계해사대학
 - 1980년 스웨덴 정부에서 해사 관련 세계대학을 말뚝시에 설립 제안하여 1981년 11월 총회 승인
 - 해사 분야 중견 종사자의 교육을 위한 국제해사 교육연구기관으로 해사 안전, 해상오염 방지, 해운산업 등의 지도자 양성 등을 통한 해사 관련 국제 격차 해소
 - 해사교육과 훈련, 해사법과 정책, 해사 안전과 환경행정, 선박과 항만관리 등 4개 전공별 석·박사과정(석사 100명, 박사 10명) 운영
- UN 평화대학
 - 1978년 12월 제33차 UN총회에서 코스타리카 대통령이 평화대학 설립 제안하여 1980년 총회에서 승인
 - UN 세계평화대학은 세계 평화와 발전을 도모하고, 협력 촉진, 평화의 공존 정신 증진 목적으로 설립하여, 본부(코스타리카 산 호세)와 분원 3개(에티오피아, 필리핀, 네덜란드)를 운영하고, 8개 국가의 대학과 파트너십 프로그램 운영
 - 환경과 개발, 국제법과 인권, 평화와 갈등 연구 등 3개 과정을 석·박사과정과 단기 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졸업생 대부분이 국제기구, 환경, 교육 및 인권 등에서 활동

IV. 전북은 세계농업대학 설립의 최적지이다

◎ 전북은 대한민국의 대표 농생명산업 도시로서 농업 성장 및 혁신 주도

- 전북의 농가경제는 전국적으로 우수하며 상대적으로 안정화된 농업구조
 - * 2018년 기준 농가소득 증가율(28.0%) 전국 1위, 농가소득(45,090천 원) 전국 3위³⁸⁾, 이전소득(10,998천 원) 전국 1위, 경지면적(197,541ha) 전국 4위
 - * 2018년 기준 농가수는 94,935가구이며, 농가인구는 208,600명,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은 230,874건임³⁹⁾
- 우수한 농업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어, 아시아 농생명밸리 기반 조성 및 농업기술 혁신에 최적지로 평가
 - * 전북은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민간육종단지, 유용미생물은행, 발효미생물 산업지원센터, 국가식품클러스터 제형

37) 해양수산부. (2015). FAO 세계수산대학 설립 제안서 p.29~32 참고하여 재인용

38) 전라북도 보도자료. (2019.5.3.). 삼락농정 농생명산업, 결실을 맺다. 전북도 농가소득증가율 28.0% 전국 1위

39) 전라북도. (2019). 전라북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연구센터, 국가식품클러스터 원료비축 및 공급센터 등 전국 제일의 농업 인프라가 구축되고 산학연 연계 활성화가 이루어져, 아시아 농생명 밸리 기반 구축 사업 등을 추진

- *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은 청년 농업 관련 창업 생태계 구축 및 한국형 스마트팜 산업 인프라 구축, 기능성 식품소재 개발 및 성능고도화 실증 등이 가능하며, 이를 위한 청년보육센터(실습농장), 스마트팜 실증단지,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등이 집적화되어 농업의 전후방 산업의 동반성장 가능
- * 첨단 ICT 연계 농업환경 안전관리 실증모델 구축 및 국내 농업기계 3대 박람회(김제농업기계박람회) 개최

• 우수한 평가로 농업 부문에서 탁월한 정책 역량 보유 및 농업 성장의 적극적 의지

- * 전북의 농업 정책 브랜드인 삼락농정(三樂農政)은 전국적 대표 모범 정책 사례로 평가(보람받는 농민, 제값받는 농업, 사람받는 농촌)
- *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전국 최초의 전라북도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농민 공익 수당 시행
- * 농산물 시장 가격이 기준 가격보다 하락하였을 경우 그 차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전국 최초 전북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를 실시(양파, 마늘, 건고추, 가을무 등 8품목)하여 농업인 소득의 안정화
- * 농업마이스터대학 교육운영(130개 과정 7,800명) 평가결과 전국 1위('19년)로 농업 교육메카로 성장하고 있음
- * 2018년 농산시책평가에서 전국 2위로 쌀 안정 생산량 확보, 고품질 쌀 생산기반 조성, 쌀 경영안정 및 생산비 절감 노력 정도, 농업인 역량강화 등에 있어 우수한 정책역량을 보유
- * 지속적인 농업 생산자의 조직화 및 유통의 규모화 추진을 통해 발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사업 평가 전국 1위('20년)
- * 2019년 농촌관광 부문 전국 1위 지역으로 농촌관광명소 으뜸촌 전국 최다로 선정되었고, 농촌관광 콘텐츠개발사업 평가 1위 지역으로 농촌관광 거점 지역 마을 조성

◎ 세계적 수준의 농업 교육 및 연구 인프라 구축

• 전라북도는 농업 및 농촌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한 국가기관 및 전라북도 농업 기관, 대학 등이 집적화된 농업의 세계적인 도시

- * 농업 및 농촌 핵심 거점 국가기관인 농촌진흥청을 비롯하여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식량과학원, 농촌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 국립농수산대학 등과 더불어 전라북도 농업기술원, 전북농식품인력개발원, 도내 농업 관련 대학 및 연구소 등이 집적화되어 있어 세계적인 교육 및 연구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음

• 농촌진흥청은 대륙별 농식품기술협력체 운영 등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해외농업기술 개발 및 교육지원을 수행함으로써 농업기술 역량 강화 및 국제적 네트워크 형성하고 있어, 세계농업대학 설립 시 전라북도가 최적의 입지 조건을 구축

- * 2009년부터 특화된 해외 농업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47개 국가의 현지 농업연구기관과 공동으로 해외 농업 기술개발사업, 대륙별 공통농업기술 현안 해결을 위한 농식품기술협력협의체 운영, 국내 농업기술 전문가 566명 파견, 개도국 농업 관련자 727명 초청 훈련 등 농업기술 역량 강화 및 국제적 네트워크 형성⁴⁰⁾
- * 해외 농업기술개발은 아시아·CIS 9개국, 아프리카 6개국, 중남미 5개국 등을 중심으로 채소, 벼, 양잠, 축산, 농기계, 과수 등의 기술 이전

40)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17.5.1.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개발도상국가의 공무원 대상 교육프로그램 운영하여 인적자원 양성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신남방 및 신북방 정책의 일환으로 개발도상국가의 공무원을 초청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고,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분야별 중점 사업 등을 중심으로 프로그램 운영

* 2019년 개발도상국가 공무원 교육을 9개 과정 218명을 대상으로 운영하였고, 3년간('16년~'18년) 총 976명의 개도국 공무원 교육훈련 실시⁴¹⁾

V. FAO 세계농업대학 유치 추진방향

◎ 추진체계 구축

- 세계농업대학 추진 TF 구성

- FAO 세계농업대학을 실무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라북도, 전문가, 공공기관, 단체 등을 포함하는 TF를 구성하여, 추진 필요성 및 추진방향, 추진방식, 추진절차 등을 담은 세부적인 계획서 수립

- 세계농업대학 유치를 위해 국가적, 전라북도의 당위성 및 설립 방향 등을 포함하는 세계농업대학 설립방안 등의 사전 연구 수행

- UN FAO-정부-KOICA-전라북도 공동협력체계 구축

- FAO 세계농업대학 유치 의향 전달 및 의향 협의, 준비, 운영방향, 교육과정 등 다각적인 추진 방향 및 전략 등을 마련 하기 위해 공동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함

◎ 이니셔티브 설정 및 기본조건 충족을 위한 대응 방안 마련

- FAO 세계농업대학 설립은 국가 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차원에서도 중요 과제로 설정하고 설립 필요성 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여, 전라북도가 이니셔티브(initiative)를 설정해 나가도록 함

- 세계농업대학 설립에 있어 FAO 현장 및 설립 협정 지침 등을 준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재정계획, 교육과정(석사 및 박사과정), 교육운용시스템, 외부 기관 및 국가기관과의 협력네트워크 구축 방안, 대학 운영 조직 및 운영 예산(수입 및 지출), 캠퍼스 조성 방안 등을 포함하는 세부 조건을 발굴하고, 이를 충족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내용 및 대응전략 마련이 필요

- FAO POLICY Regarding Assistance in Establishing Regional Research and Training Institutes, Resolution NO. 48/57(FAO 현장 제15조 및 FAO 현장 지침의 결의안 48/47; 지역연구 및 훈련기관 설립 지원에 관한 FAO 정책) 등에 근거한 재정지원 및 시설, 부지 계획 등

41)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2019). 내부자료

511. The Conference had before it a note from the Director-General requesting policy guidance regarding FAO assistance in the establishment of regional research and training institutes and containing a proposed course of action. The Conference noted that several regional bodies of FAO had recommended the establishment of such institutes to meet needs for research and training in specific subject fields common to several countries of a region. The Conference noted also that several countries had recently offered sites and various facilities and had requested the Organization to assist i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research and training institutes on a regional basis

512. Since a number of aspects of the Director-General's proposal required clarification and further consideration, the Conference adopted the following Resolution:

Resolution No. 48/57

Regional Research and Training Institutes

The Conference

Having noted the considerable number of proposals for FAO assistance in the establishment of regional research and training institutes;

Recognizing the desirability of providing the Director-General with more specific policy guidance in dealing with this matter than is contained in the Constitution;

Desiring clarification upon certain aspects of the matter and opportunity for further study of the Director-General's proposal;

Requests the Council to consider this proposal in its meeting immediately following the Ninth Session of the Conference and advise the Director-General on a suitable course of action.

<http://www.fao.org/3/x5574e/x5574e0c.htm>

- FAO Guiding Principles with Respect to Agreements under Article X V of the Constitution for the Establishment of International Institutes dealing with Question relating to Food and Agriculture (FAO 헌장 제15조 하에서 식량과 농업에 관련된 문제를 다루는 국제기관 설립 협정에 관한 지침)에 의한 기본적 조건(basic considerations) 검토

Agreements for the establishment of regional institutions should include the following points, it being understood that the pattern given below would have to be modified, adapted or completed to suit specific situations.

Basic considerations

1. Aims and objectives
2. Organs
3. Administration
4. Staff
5. Obligations of parties
6. Control by FAO
7. Expenses
8. Legal status
9. Method of participation in agreement
10. Amendments to agreement
11. Entry into force
12. Reservations
13. Territorial application
14. Interpretation and settlement of disputes
15. Withdrawal and denunciation
16. Termination
17. Authentic languages
18. Procedures governing preparatory work and approval by the Conference

[http://www.fao.org/tempref/docrep/fao/008/j2954e/j2954e01.pdf\(p.216-221\)](http://www.fao.org/tempref/docrep/fao/008/j2954e/j2954e01.pdf(p.216-221))

◎ 추진 절차

- UN FAO와 사전협의 및 총회 등을 통한 제안서 채택 및 양해각서 체결
 - FAO 세계농업대학의 필요성을 제안하고, 개발도상국가의 적극적인 지지를 얻기 위한 사전 노력을 통해, 세계농업대학의 설립에 대한 공감대 형성하고 FAO의 회원국 상호간 협력 촉진
 - FAO 세계농업대학 설립 관련하여 FAO와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추진 협력에 대한 의견 교환
- FAO 아시아-태평양 지역총회 협의, UN FAO 농업분과위원회 및 FAO헌장 법률위원회 승인, FAO 총회 의제 상정 및 승인

FAO 세계농업대학 설립하여 전북에 유치하자

- FAO 세계농업대학 설립을 위해, FAO 아시아-태평양 지역총회에서 의견 교환, 농업분과위원회, 현장 법률위원회의 검토 및 확인 승인 추진
- 세부적인 과정 및 절차 등을 이행하고 난 후, FAO 총회에 의제를 상정하여 최종 승인을 추진하여 설립을 확정

• 세계농업대학 설립을 위한 기본구상 및 설립 제안서 작성

- 세계농업대학 설립에 필요한 ODA 현황 및 세계 농업현황 분석, 사례연구 등을 포함하여, 예산 및 운용체계, 교육시스템(교육과정 등), 거버넌스 및 관리체계, 법률체계 등을 연구
- 세계농업대학 자체시범사업 및 공공시범사업 설립제안서 작성, 운영위원회 제출 보고서, 세계농업대학 설립에 관한 협정 및 대학 현장 마련

◎ 세계농업대학 유치의 정성적 기대효과

- 세계농업대학의 설립 및 유치는 국가 및 전북의 글로벌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개발도상국가의 농업 성장 및 혁신을 위한 가교역할을 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글로벌 영향력이 확대될 것임
- 세계농업대학의 설립은 국가 및 전북의 농생명 산업의 성장·발전에 시너지 효과를 높여, 세계적인 농업 전문인력 양성 거점지역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음

<참고문헌>

- 관계부처 합동. (2020). '20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 김문희·김중현·박동규. (2019). 통계로 본 세계 속의 한국농업.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신기석. (2019). OECD-FAO 농업전망 2019-2028: 곡물 및 유지작물. 『세계농업, 230호(10월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전라북도. (2019). 전라북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 해양수산부. (2015). FAO 세계수산대학 설립 제안서
- FAO 한국협회. (2014). 2014 세계식량농업보고서-가족농혁신(한국어 번역)
- FAO 한국협회. (2015). 2015 세계식량농업보고서-사회보호와 농업: 농촌빈곤의 악순환 타파(한국어 번역)
- FAO 한국협회. (2019). 2019 세계 식량농업 통계연감(한국어 번역)
- FAO 한국협회. (2020.4). 세계 식품과 농수산.
- FAO. (2014). The State of Food and Agriculture-Innovation in family farming.
- FSIN. (2020). 2020 Global Report on Food Crises-Joint Analysis For Better Decisions.
- U.S. Government. (2011). FEED THE FUTURE: Global Food Security Research Strategy.



ISSUE BRIEFING
2020. 06. 10 Vol. 223

jthink
전북연구원

55068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공주팔자로 1696 Tel 063-280-7100 Fax 063-286-9206

발행인 김선기
발행처 전북연구원

※ 이슈브리핑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전라북도 정책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지난 호 이슈브리핑을 홈페이지(www.jthink.kr)에서도 볼수 있습니다.

